

# 눈 앞에서 보듯 생생... 미디어아트 입은 전남 관광지

### 도, 강진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섬진강기차마을 생태학습관 등 프로젝션 맵핑 3면 스크린 구성...관광객들에 몰입형 영상 상영

미디어아트가 전남 곳곳의 관광지에 스며들고 있다. 지난 2021년 8월 여수에 아르떼뮤지엄에 이어, 올해 9월 개관한 '딜라이트 담양'이 새로운 미디어아트를 선보이며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전남도와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도 지난 2020년부터 강진 고려청자디지털·다산박물관과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내 생태학습관에 이어 고흥 건물 외벽에도 지역자원을 형상화한 미디어아트가 등장할 예정이다.

강진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에서는 지난 2020년도와 진흥원이 제작 지원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기존에 세미나실로 활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해 프로젝트 맵핑으로 3면 스크린을 구성, 몰입형 영상을 상영 중이다. 청자무역선의 침몰

로 시작하는 영상은 관람객에게 청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청자의 전체 제작 과정에 대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몰입형 영상은 강진 다산박물관에서도 만날 수 있다. 새로 영상실을 구축해 4개의 벽면과 바닥을 활용, 다산초당의 사계절 풍경을 구현했다. 관람객들에게도 "전시관이 아닌 박물관에서 만나 더 특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공간이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곡성에서는 관람객들이 스크린을 터치하면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해 전남도의 지원을 받아 섬진강기차마을 내 생태학습관에 3면 프로젝트 맵핑을 활용한 '곡성을

부탁해' 콘텐츠를 구축했다. 좌우측 벽면과 바닥에 곡성의 자연 생태환경을 시각화했다. 좌우 벽면 위에 UFO로 인해 물방울에 갇힌 동물, 물고기, 곤충이 나타나고 이를 터치하여 곡성의 생태환경을 지키는 미션을 수행하는 체험형 콘텐츠다.

올해 말 고흥에서는 건물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가 들어선다. 고흥군은 야외공간을 활용한 특화콘텐츠로 목일신문화예술거리와 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도의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에 신청해 선정됐다. 이에 따라 평생교육원으로 사용되던 건물 외벽에 고흥군을 대표하는 우주, 동백꽃(군화), 목일신 시인 등의 소재를 활용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제작할 방침이다. 마무리 단계의 콘텐츠는 오는 7월 저녁에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와 진흥원은 내년도에도 최소 1개 이상의 미디어아트 콘텐츠를 시·군 공공 문화공간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안용 진흥원 원장은



강진 다산박물관의 미디어아트 '삼따라 자취따라 다산 정약용'. 다산초당의 사계를 프로젝트 맵핑을 통해 표현했다.

"진흥원은 지금까지 지역 특화자원에 ICT기술을 접목한 융합콘텐츠 개발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관광객들이 만

족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남구자원봉사센터 "사랑을 나눠요"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일 남구 월산동 나눔의 센터에서 2022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가졌다. 자원봉사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직접 담근 김장김치 1500포기를 관내 소외계층 700세대에 전달했다. /나눔기자mjna@kwangju.co.kr

## 광주시민 97% "가뭄 심각...물 절약 실천 절실"

광주 시민 대부분이 가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은 물 절약을 위해 생활 속 물 절약 실천과 물 절약 캠페인·홍보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광주 온(on)'을 통해 시민 정책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2277명 중 97.8%인 2226명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519명(66.7%)은 "매우 잘 알고 있

다", 707명(31.0%)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가뭄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명(1%)에 그쳤다.

물 절약 실천 방안 중 가장 우선 참여하는 방안으로는 ▲빨랫감 모아서 한 번에 세탁하기(37.4%) ▲가정 내 수도 밸브 수압 저감(25.4%) ▲샤워 시간 절반 줄이기(22.2%) ▲양치 컵 사용(15.0%) 등 순이었다.

가장 시급한 가뭄 대책으로는 시민들의 생활 속 물 절약 실천(55.9%)을 꼽았으며, 물 절약 캠페

인과 홍보(23.6%), 제한 급수(16.7%), 한시적 수도 요금 인상(3.8%)이 뒤를 이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시민소통 플랫폼 광주 온(on)을 구축해 운영중이며, 지난 9월 초부터 만 14세 이상 시민 정책참여단 약 2만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정책 수립 전후 주요 쟁점과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광주시는 그 결과를 정책 추진 자료로 활용한다.

김성수 광주시 시민소통과장은 "시민 의견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이달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 5·18 당시 계엄군 장갑차·헬기 전시 제동

### 광주시의회, 예산 전액 삭감... "피해자들에 트라우마 가능성"

광주시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시민 집안에 사용했던 동일 기종의 장갑차와 헬기 전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최근 시 민주인권평화국 내년 본예산 심사에서 5·18 출동 기종 장비 이전·전시 예산 1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광주시의회 정다운(민주·북구 2)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은 명백한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국가 폭력의 흉기로 사용됐던 장갑차와 헬기 등의 전시 계획은 사업 추진에 앞서 시민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된 것과 같은 기종으로 폐기를 앞둔 장갑차 3대, 전차와 헬기 1대씩 모두 5대를 군부대로부터 넘겨받아 5·18 자유공원에서

전시할 계획이다.

5·18의 상흔을 되새길 역사 교육 등에 활용한다는 취지였지만, 시의회 상임위에서는 피해자들에게는 트라우마나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은 "최근 5·18 유공자 200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 중 절반이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18 상처는 아직 아물지 못했고 작은 충격에도 진물이 흐르는 만큼 결코 가볍게 다루겨서는 안 되고, 진지한 고민과 담론 형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시의원들을 설득해 예산결산특별위 심사에서 예산을 되살릴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전남에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건의

### 김영록 지사-이종호 과기부장관 회동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등 전남 미래 100년을 위한 과학기술 분야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을 비롯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 반영, 강소연구개발특구 예타 평가대상 선정 등이다.

김 지사는 "반도체·우주항공·국방·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의 핵심 요소기술로 손꼽히는 레이저 원천기술 선점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

다"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이 국가 기초연구발전과 첨단산업에 기여하도록 '레이저 기술'을 과학기술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후보 부지를 조속히 선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고흥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기업유치 및 지역거점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지정'과 특화산업 조성 등 핵심사업 예타 통과를 바랐다. 이와 함께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수용성 제고와 미래 우주산업 육성에 필요한 우주과학 교육·체험시설 구축을 위한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도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도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 수목장\*자연장 전문

##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 주말, 공휴일도 24시간 상담가능 〉

# 062) 464 - 9190